# 어머니들 전통고추장 만들기에 '퐁당'

## 인천승학초, 전통문화 체험행사 가져

인천승학초등학교(교장 배인국) 과학실에서는 지난 5월 31일 '퐁당퐁당'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바로 어머니들이 우리 전통 고추장 만들기의 매력에 빠지는 소리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사를 했다.

이 행사는 남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부모 행복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 양념인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배우고 나서 실습과정으로 과일 고추장 만들기를 진행했다.

메줏가루, 찹쌀가루, 소금, 고춧가루에 딸기 과즙을 넣고 휘휘 저으며 선조들이 왜 고추장에 굵은 소금을 넣었는지, 고추장은 어떤 과학적 원리로 발효가 되는지, 옛날과 오늘날의 장 담그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등 그 이유도 배우면서 매우 즐겁고 활동적으로 고추장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행사에 참여한 5학년 박지은 학생은 "고추장은 매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래와 우리 전통 장류의 우수성을 공부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을 것 같고, 우리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학부모는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학교에 와 느끼는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 안전한 전통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실습으로 이런 먹거리를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인국 교장은 "인천승학초는 오늘같이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안용섭 기자 ays@

# "담배연기 싫어요!"

## 인천연화초 '흡연 없는 학교 금연 선서식' 행사 실시

인천연화초등학교(교장 김현수)에서는 6월 5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선서식을 하고 흡연 예방 자료전시 및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 선서식에서 김현수 교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중에 호기심 등으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흡연은 학생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라며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히 신체적·정식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해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매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라면서 "오늘 흡연 예방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이 담배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학교를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학습공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선서식 행사를 마치고 전 학년 반별로 다목적실에 준비된 '흡연 예방자료전시 및 체험 교육'을 관람하고 순회체험을 했다.

체험 내용은 먼저 금연교육 DVD 시청, 흡연자 구강모형, 정상 폐와 흡연자의 폐 비교 실험, 간접흡연의 위험, 금연체험결과 한마디 등의 순서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이 끝나면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를 활용했다.

안용섭 기자 ays@

# '자연 愛 끌림'

## 명현중, 숲 생태 체험 활동

명현중학교(교장 김기택)는 지난 6월 24일 '자연愛 끌림 숲 생태 체험 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4월 13일에 처음 천마산을 둘러보며 관찰했을 때는 어린싹들이 많았었는데 5회기를 거치는 동안, 어느덧 넓은 공간에는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도 생겼고, 산 버찌는 벌써 다 떨어졌지만, 단풍나무와 참나무들이 아기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 나무에서는 하얀 진들이 올라오고 벌레들도 많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하며, 참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생태지도를 그리는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평상시에는 덜렁거리기만 했던 학생이 정말 꼼꼼하게 지도를 그려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한 느낌도 받았다. 생태지도를 마무리한 후 학생들은 2학기 숲 생태 안내자가 돼 다른 친구들에게 배운 과정을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생태활동에 대해 서로 소감을 나누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된 참가 학생들은 자장면 파티로 의미 있게 하루를 보냈다.

안용섭 기자 ays@

# 두드림 속에 내 마음도 두근 두근

## 서운중, 2017 문화가 있는 날 '한판축제 시즌2'

서운중학교(교장 박만실)는 검단복지회관이 2017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한판 축제 시즌2 행사에 서운중 '두드림 do dream' 난타 동아리가 동아리 발표공연으로 6월 28일 참석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이 검단먹거리타운 예술 거리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공연의 6월 테마는 '난타 혹은 사물놀이'였다. 참여자들이 각자 가진 색깔을 내며 무지개처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모둠북 공연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3월부터 배우고 익힌 결과물을 이번 공연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모둠북 공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난타 동아리 활동 및 공연준비를 하면서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및 책임감, 성실성이 향상됐으며 교실 안에서는 꿈과 끼가 넘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서운중학교 난타 동아리 공연에 참석한 박혜원 학생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많이 배워서 여기까지 온 난타 동아리여서 첫 무대에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는데 틀린 사람 없이 모두 잘해서 뿌듯했고, 공연 시간이 짧아서 좀 아주 아쉬웠지만, 다음 공연에는 더 연습해서 더 길게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운중학교 세로토닌 드럼 클럽 난타 동아리는 앞으로도 매주 점심시간(월, 수, 금) 및 금요일 방과 후에 동아리연습실에 모여 모둠북 기초이론교육과 각종 장단에 맞추어 연습하고, 배우고 익힌 재능을 지역을 찾아가 공연 봉사활동으로 나누고 난타의 아름다운 두드림을 열정과 성실로 펼쳐나 갈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 인천동방중,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장근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골든타임 4분 내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2학년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자 전원이 마네킹을 이용해 위급할 때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하게 된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교육 등 실제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을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근수 교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는 항상 응급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 구성원 누구든지 응급구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 지역이 하나되는 학교 만들기

## 북인천여중, 미로스타뷰티아카데미와 지역 네트워크 위한 협약식

북인천여자중학교(교장 이계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6월 14일 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협약식을 미로스타뷰티아카데미(대표 박인숙)에서 진행했다.

이 협약식은 체험학습 및 뷰티 관련 강연 등 직업체험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뷰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

참여한 기관 담당자와 교육복지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박인숙 대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뷰티사업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 계양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식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30일 노인요양시설 43개소 중 12개소에 대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 18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박형우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인권지킴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권지킴이는 지역주민대표(통장, 보장협의체 위원 등), 사회단체 회원 등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자로 각 동에서 추천받아 구성됐으며 2017년 7월부터 활동하게 된다.